

damien HIRST

10. 29. – 11. 30. 2021

THE
PAGE
GALLERY

THE PAGE PRESS GALLERY RELEASE

CONTACT

이은주 디렉터 eunju@thepage-gallery.com

채현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thepage@thepage-gallery.com

* 총 작품리스트와 이미지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webhard.co.kr / ID: thepage0049 PW: 0049**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더페이지 갤러리

THE PAGE GALLERY, G205 GALLERIA FORET,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2021.10.29 - 2021.11.30]

damien HIRST

더페이지갤러리는 30여 년의 작업 경력에 걸쳐 미술계에 꾸준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국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개인전 <damien HIRST>를 개최한다. 전시는 데미안 허스트의 1990년대-2000년대 '약장(Medicine cabinet)',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 '나비 색면 페인팅(Butterfly Colour Painting)', '치유 회화(Remedy Painting)' 등 주요 작업을 통해, 생명의 유한함과 죽음, 실존의 문제를 독창적인 시각언어로 탐구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데미안 허스트는 현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적, 의학적 소재를 작품에 적극 활용한 연작을 제작하였다. 특히 약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이나 알약을 캔버스에 붙인 작품 등은 의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부작용의 문제를 꼬집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비를 그대로 캔버스에 붙인 작품을 통해서는 생명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한편 스스로를 '컬러리스트'라 칭할 정도로 색채, 그리고 '보는 것(seeing)'의 문제에 깊이 파고들었던 작가는 이질적 소재를 가지고 풍부한 색채의 스펙터클을 만들어낸다. 약 상자, 알약, 나비 등은 가까이서 볼 때에는 지식과 논리를 품은 구체적이며 문제적인 대상이나,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관객을 매혹시키는 추상적 요소일 뿐이다.

때로 직관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혹은 은유적인 시각 언어로 생명과 죽음, 예술과 과학에 대한 주제를 담은 허스트의 작품은 더페이지갤러리 WEST관에서 11월 30일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는 네이버 예매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ARTIST

데미안 허스트 (b. 1965)

영국의 예술가이자 사업가, 컬렉터인 데미안 허스트는 30여 년의 작업 경력에 걸쳐 미술계에 꾸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현대미술가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는 1988년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동문들과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시 '프리즈 Freeze'를 통해 미술계에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런던 도클랜드 부근의 방치된 창고 건물을 빌려 안젤라 불록, 맷 콜리쇼, 개리 흄, 사라 루카스 등 16명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한 이 전시는 광고업계의 대부이자 슈퍼컬렉터였던 찰스 사치를 비롯한 미술계 저명인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치의 전폭적인 후원을 업고 영국 및 국제 현대미술계에서 신선한 흐름을 이끌었던 YBA(Young British Artists) 작가들 중에서도 허스트는 단연 충격적이고 스펙터클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죽음과 삶, 아름다움, 예술과 과학 등의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어 왔으나, 동물의 사체를 포름알데히드에 담가 그대로 전시한 충격적인 작품에서부터 실제 약을 사용한 페인팅과 설치 작업,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붙인 해골까지 작업에 사용한 매체는 무궁무진하다. 작업 초기부터 가장 오래 이어온 시리즈인 '스팟 페인팅 Spot paintings', 죽은 동물을 소재로 한 '자연사 시리즈 Natural History series',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약 상자나 알약을 이용한 '약 페인팅 Pharmaceutical paintings', 죽은 나비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나비 페인팅' 등 그의 작업 시리즈는 늘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받아왔으나, 그가 삶의 유한함에 대해 직관적으로 호소하며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획기적인 시각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허스트는 기존에 예술가에게 기대되었던 역할, 범위, 한계를 자유분방하게 넘나든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화가로 알려진 그는 비즈니스 매니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예술로 사업을 펼치며, 관행을 깨고 직접 경매에 작품을 내놓는 등 술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작업의 내용은 물론, 작가로서의 행보에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현대미술가다. 그는 테이트 모던(2012년), 베니스 팔라조 그라시와 폰타 델라 도가나(2017년)을 비롯한 유수의 미술관에서 회고전 및 개인전을 가졌다.

ARTWORKS



Well, Whaddya Think

2005, Glass, stainless steel, steel, nickel, brass, rubber and medical packaging
213.4 x 91.4 x 10.2 cm



Huht-Hmm

1997, glass, painted MDF, beech, ramin, plastic, aluminium and pharmaceutical packaging
38.1 x 76.2 x 15.2 cm

약장 시리즈는 작가가 1988년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교 2학년에 다닐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첨예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들은 진열장에 가득한 약 상자 대표되는 현대 의학과 약학을 완전히 신뢰하며, 따라서 허스트의 예술 작품도 “완전히 믿음 직스러운(totally believable)”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초기에는 약장 자체가 하나의 인체인 것처럼 맨 윗부분은 머리, 맨 아래는 발 등 각각의 신체부위에 대응하는 약품으로 진열하였으나, 이 규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미적, 디자인적으로 조화로운 색채의 구성에 따라 배열되었다. 즉, 약 상자 자체가 작가에게는 마치 솔 르윗(Sol Le Witt)이나 도널드 저드(Donald Judd)의 미니멀리즘 작품의 요소와 같이 색채, 형태의 기본 언어로 사용된 것이다.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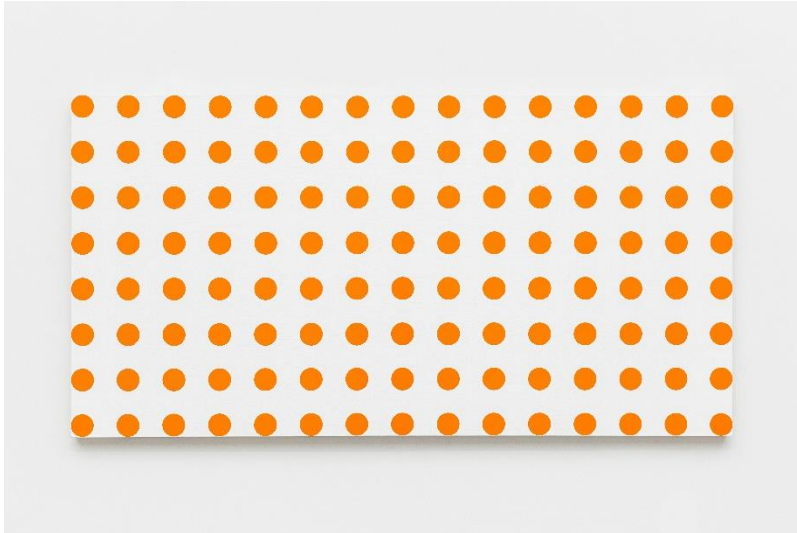
Tulips – And I am Aware of my Heart It Opens and Closes

2006, Butterflies and household gloss on canvas

Each 295 x 205 cm (Framed)

나비 색채 회화(Butterfly Colour Paintings)는 허스트가 졸업 직후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프라이머를 칠해둔 캔버스에 파리가 붙은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하기 시작한 시리즈이다. 파리 대신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화려한 나비를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죽은 나비를 단색으로 칠한 캔버스에 고정시켰다. 작가는 캔버스를 칠할 때에 일부러 가정용 페인트(household gloss)를 사용하는데, 이는 열심히 칠한 페인트에 우연히 붙어버린 나비를 연상시키며 우스꽝스러운 사고처럼 연출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살아있는 듯 죽은 나비를 통해 작가는 생명과 죽음, 예술과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며, 나비는 작가의 이후 시리즈에서도 주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ARTWORKS



Propionic Anhydride

2008, Household gloss on canvas (spot size two inches)

76.2 x 147.3 cm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은 사각 또는 둥근 캔버스에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색의 원을 반복적으로 그려 넣은 추상화로 허스트의 여러 시리즈 중 가장 대중적이고 경쾌한 연작이다. 스팟 페인팅의 13개의 하위 시리즈 중에서 약의 이름에서 임의로 따온 제목을 붙인 '약(Pharmaceutical)' 시리즈가 가장 처음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이 시리즈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제작되어 1000 작품이 넘는다. 2012년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스팟 페인팅 전체 시리즈를 망라한 'Damien Hirst: The Complete Spot Paintings 1986-2011' 전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작가가 1988년 프리즈(Freeze) 전시 때부터 제작한 이 시리즈는 처음에는 손으로 그린 흔적을 드러냈지만, 이후부터는 조수들을 시켜 만들며 컴퍼스로 그린 흔적 등 사람의 손길을 거의 제거하였다. 이 작품은 자신을 '컬러리스트'라 칭하는 허스트가 오직 '색채의 즐거움(joy of colour)'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군더더기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색의 조합과 구성을 궁극적으로 추구한 작품이다.

damien HIRST

ARTWORKS



Exercise One

2008-2009, Metal, resin and plaster pills and watercolor on canvas
61 x 71.1 cm



The Eternal

2008-2009, Metal, resin and plaster pills and watercolor on canvas
50.8 x 40.6 cm

“알약을 바라보면, 너무나 완벽하고 순수해보인다. 그래서 각각의 약들이 가진 부작용을 줄줄이 나열하면 당신의 팔만큼이나 긴 리스트가 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데미안 허스트)

ARTWORKS

약장 시리즈에서 확장된 작업인 '치유(Remedies)' 시리즈는 색칠한 금속, 레진, 혹은 석고로 만든 알약을 흰 바탕의 캔버스에 무질서하게 배열한 작품이다. 기성제품의 형태 및 브랜드명을 그대로 모사하여 진짜 '약'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수채화로 알약의 색채를 군데군데 추가하여 알약의 얼룩이 마치 캔버스에 스며드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와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과학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술이 가진 회복력과 구원의 역할을 암시한다.



Dust to Dust

1997-1998/2004

Pestle and mortar filled with Copper 2 Sulfate in a glass dome with a wooden base

46.4 cm high overall



An Eye for an Eye

1997-1998/2004

Antique microscope in glass dome with wooden base

46 cm high overall

ARTWORKS



Working Model for Molecular Structure

1997-1998

Plastic molecular model with labels mounted in plexiglass box

Model 17.1 cm high

1997년 데미안 허스트는 런던 노팅힐 부근에 "Pharmacy(약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허스트가 전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였으며, 특히 대형 "분자 구조(Molecular Structure)" 작품을 비롯한 여러 주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이 레스토랑은 그의 '약국(Pharmacy)'(1992) 설치 작업이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을 때 함께 오픈한 것으로, 허스트는 이에 대해 "예술은 죽었고, 삶은 살아있다. 약국[레스토랑]은 살아있다. 저녁식사를 하고, 음식에 대해 불평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살아있는 것이다. 반면 '약국[전시]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2003년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며 경매사 소더비에서 이곳의 작품과 붙박이장, 가구, 테이블웨어 등을 모아 대규모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의 약 절구 모형, 현미경 등은 허스트의 '약 시리즈'의 맥락을 설명하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작은 분자구조는 '약국'에 실제로 전시되었던 대형 조각의 모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RTWORKS



Virgin (exposed)

2005, Acrylic paint on resin

61 x 29.1 cm

Edition 10 of 15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해부학적 모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작가의 작품 중, '처녀' 작품은 여러 상징을 떠올리게 한다. 에드가 드가(Edgar Degas)의 '14세의 어린 무용수(The little fourteen-year-old dancer, 1880)' 조각의 포즈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한편, 제목의 'virgin'은 '성모 마리아 (Virgin Mary)'의 잉태를 연상시킨다. 여성 신체의 반이 해부학적으로 표현되며 함께 적나라하게 노출된 태아 형상은 시각적 대비와 충격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아이를 가진 여성의 연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느끼게 한다.

ARTWORKS



The Golden Jubilee (Blue)

2008, Oil on canvas

91.4 x 121.9 cm

허스트의 '팩트 페인팅(Fact Paintings)' 중 '유명한 다이아몬드(Famous Diamonds)' 시리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들의 카탈로그를 보고 그린 작품이며, 허스트에 의하면 이 작업은 "단순히 사진을 복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작가는 "실제 다이아몬드는 작고 아름다운 반면, 그림들은 크고 화려하다"며 작품을 통해 환상과 현실의 거리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캔버스에 유화로 컬러 사진을 거의 완벽하게 모사하는 팩트 페인팅은 완벽하게 실제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한편 손의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19세기 사진의 탄생과 함께 그림과 현실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왔으며, 허스트의 이 연작 역시 붓과 카메라 중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특히, '유명한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 등 그의 이후 작품의 주요 모티브였던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하였다.

damien HIRST

EXHIBITION

2021. 10. 29 – 11. 30

CONTACT

02-3447-0049

www.thepage-gallery.com